



사실추론

[사실추론] 개념

(가)	기준	대전제	보편 원리	$F(x)$	교과 개념
(나)	대상	소전제	관련 사실	X	문제 조건
정답	설명	결론	적용 결론	Y	정답

⇒ 사실추론: 원인 분석, 결과 예측, 의미 해석

- 1) 원인 분석: 이론(전제-결론)과 함께 결론과 관련된 구체적 상황 제시 후 추론
- 2) 결과 예측: 이론(전제-결론)과 함께 전제와 관련된 구체적 상황 제시 후 추론
- 3) 의미 해석: 이론(전제-결론)과 함께 전제-결론 모두와 관련된 구체적 상황 제시 후 추론

[사실추론] 독해법

1. 기준 제시문을 보편적(이론적) 차원으로 다듬어 정리한다. - 대전제 설정
2. 대전제를 고려하여 대상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한다. - 소전제 설정
3. 정리된 내용을 논리평면 안에서 정합성이 갖춰지도록 완성한다. - 결론 확정

☞ [이화여대 2021학년도 기출 인문1 1-2번 변형] 제시문 [가]의 마녀사냥에 대한 논의에 근거하여 제시문 [다]의 채식주의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해석하시오. [20점]

[독해]

(가) 폭력적 억압을 통한 시민 통제 - 마녀사냥 → 지배질서 안정성 강화

(나) 손님들: 그들의 상식을 근거로 채식주의의 '이상함'을 주장

아내의 아버지: 가부장적 권력자로서 물리적, 정신적 폭력으로 자신의 질서에 반하는 딸을 억압

[논리평면] 사실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가)	폭력적 억압을 통한 시민 통제	지배 질서 안정성 강화
대상	손님들	정신적 차원에서 아내에게 문화적 압박	잡식주의 가치관의 안정성 수호

[예시답안] Type-A(기준 제시 후 적용), Type-B(대상 제시 후 적용)

문단	기능	내용 [Type-A]
1	기준 핵	사회에 균립하는 지배 질서는 스스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질서 거부자들을 통제한다.
	기준 상	제시문 (가)에 나타나듯, 중세 국가는 당대의 지배적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반사회적' 존재들을 마녀사냥을 통해 처단했다. 이에 따라 사회가 그들이 규정한 '균질한 영혼', 즉 지배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들만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관리했다.
2	주장	이러한 질서 관리는 제시문 (다)의 아내를 괴롭히는 손님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대상	손님들은 채식주의를 지키는 아내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육식을 해야 본능에 충실한 것이고, 정신적으로 원만한 것이라며 아내의 채식주의를 비난한다.
	적용	이러한 추궁은 잡식주의를 지배적 식문화로 규정한 사회 질서를 지키려는 기득권의 폭력 행사라고 볼 수 있다.

문단	기능	내용 [Type-B]
1	대상 핵	제시문 (다)의 손님들은 채식주의를 지키는 아내를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한다.
	대상 상	그들은 육식을 해야 본능에 충실한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원만한 것이라며 아내를 비난한다.
2	주장	이러한 손님들의 반응은 지배 질서를 위한 통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기준 핵	사회에 균립하는 지배 질서는 스스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질서 거부자들을 통제한다.
	기준 상	제시문 (가)에 나오듯, 중세 국가는 당대의 지배적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반사회적' 존재들을 마녀사냥을 통해 처단했다. 이에 따라 사회가 그들이 규정한 '균질한 영혼', 즉 지배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들만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관리했다.
	적용	이처럼 손님들의 비난은 잡식주의를 지배적 식문화로 규정한 사회 질서를 지키려는 기득권의 폭력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중앙대 2018학년도 모의 인문사회, 경영경제 2번

- ☞ 제시문 (마)의 용기에 대한 맹자의 주장을 활용하여 제시문 (라)에 나타난 '나'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바)의 '시인'이 보여 준 용기는 맹자가 말하는 용기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서술하시오. [550~570자]

(라)

오후에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찾아와 진상을 알려 주었다. 김영수는 아주 심각한 말더듬이 증세를 갖고 있고, 그 증세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읽거나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아까 갑자기 말문이 막혀 책을 읽을 수도, 그렇다고 말을 더듬어서 못 읽겠다고 설명할 수도 없는 처지였을 것이고, 그 사정을 잘 아는 서훈이가 당황하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대신 읽었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정말이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중략)

'미안해'라는 말은 여간 어렵지 않다. 분명히 내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안해'라는 말을 하려면 목소리가 기어올라거나 가능하면 슬쩍 얼버무리 버린다. 마음속으로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아서 가 결코 아니다. 너무나 미안하다고 생각할 때도 그렇다. 게다가 가끔씩은 그런 말을 할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적도 있다.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오해는 아니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거만하게 보이거나 못된 사람으로 비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나의 성격적 결함을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미안해'라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쩔거나 그 말이 목에 딱 걸려 안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기까지 한다. 왜 '미안해요'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그토록 어려운 것인가?

그것은 나의 삶의 방식과 연결된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도 내게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체득한 내 삶의 법칙은 슬프게도 '삶은 투쟁이고, 투쟁은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승부 근성이 투철한 내게 '미안해'라는 말은 결국 내가 졌다는 뜻이고,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경쟁 심리가 그 말을 거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혹은 자존심 탓일 수도 있다. '미안하다'고 말한다는 것은 나의 결함과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아니, 좀 더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가 보면 그것은 아마도 내가 어쩌면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니면, 내가 남보다 못났다는 데 대한 열등의식이거나 자격지심일 수도 있다. 만일 내가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면, 내가 잘 못했고, 그 사실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는가. (중략)

내일은 수업 끝나고 정식으로 사과해야지.

“애, 영수야, 지난번엔 미안했어. 수업 중에 읽는 것 시키지 말라고 말해주지 그랬니. 모르고 그런 거니 용서해 줄 거지?”

이번 일을 계기로 나도 '미안합니다'를 좀 더 자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마)

맹자에 의하면 부동심이란 내면화된 용기, 즉 외물의 존재와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주로 삼는 바를 지니고, 이를 지키는 수양이 전제될 때 확립되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맹자는 인간의 실천적 행동력으로서의 용기를, 혈기의 단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혈기지용'과 진실과 정의의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는 '의리지용'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맹자는 혈기지용의 구체적 사례로 북궁유와 맹시사의 용기를 들었으며, 의리지용의 구체적 사례로 증자의 용기를 들었다.

북궁유라는 용사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을 위주로 하여 용기를 이루는 요체로 삼았으며, 맹시사는 역전의 용사로서 승패에 상관없이 오직 내면의 두려움이 없는 것을 위주로 하여 용기를 이루는 요체로 삼았다. 이들과 달리 증자는 스스로 돌이켜 정직하다면 비록 천만 명이라도 나아가 대적할 수 있는 도덕적 의리를 기반으로 하여 용기를 실천했다. 맹자는 평가하기를, 외향적인 북궁유의 용기에 비해 내향적인 맹시사의 용기가 진정한 용기에 가깝지만, 이들의 용기는 모두 혈기지용에 그치므로 의리지용을 지향하는 증자의 대용(大勇)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맹자에게 진정한 용기란 스스로 반성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며, 하늘이 부여한 선한 본성을 실현하는 용기이다.

(바)

위험한 지식이 담긴 책들을 공개적으로 불태워 버리라고
이 정권이 명령하여, 곳곳에서
황소들이 끄끙대며 책이 실린 수레를
화형장으로 끌고 왔을 때,
가장 뛰어난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추방된 어떤 시인이 분서 목록을 들여다보다가
자기 책들이 누락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는 화가 나서 나는 듯이 책상으로 달려가,
집권자들에게 편지를 썼다.
내 책을 불태워 다오!
그는 신속한 필치로 써 내려갔다.
내 책을 불태워 다오!
그렇게 해 다오!
내 책을 남겨 놓지 말아 다오!
내 책들 속에서 언제나 나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들이 나를 거짓말쟁이처럼 취급한단 말이냐!
나는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내 책을 불태워 다오!

최은식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 제시문 (마)의 용기에 대한 맹자의 주장을 활용하여 제시문 (라)에 나타난 '나'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바)의 '시인'이 보여 준 용기는 맹자가 말하는 용기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서술하시오. [550~570자]

[독해]

(라) '나'의 변화: 자존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사과하기 어려워했으나, 양심에 의거해 용기를 내어 사과함

(마) 진정한 용기 - 의리지용 ⇨ 정의로운 도덕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용기

(바) 언제나 진실을 말한다는 도덕적 신념을 관철하고자 억압 정권에 맞서 항거함

[논리평면] 사실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마)	진정한 용기 - 의리지용	정의로운 도덕적 신념에 따라 행하는 용기
대상	(라)	진정한 용기를 발휘함	도덕적 양심에 따라 부정적 생각을 극복하는 용기
	(바)	의리지용	진실을 말한다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항거

[예시답안] 570자

문단	기능	내용
1-1	기준 핵심	진정한 용기란, 도덕적 신념에 따라 담대히 행하는 용기이다.
	기준 상술	이는 (마)에 나타나듯, 스스로의 도덕적 양심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자신이 해야 할 말과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외부 조건에 영향을 받거나, 끝없는 혈기로 인해 두려움을 잊어버린 용기가 훌륭하지만, 내면의 양심에 따라 담대히 행하는 용기, 즉 '의리지용'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는 것이다.
1-2	주장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라)의 '나'가 변화된 모습을 보인 것도 '나'가 진정한 용기인 의리지용을 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상	'나'는 말 더듬는 증세를 갖고 있는 학생에게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하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자괴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주저하다가, 결국 도덕적 양심에 기대어 용기를 내고 해야 할 말, 즉 사과를 하게 된다.
	적용	이는 내면의 도덕성에 따라 진정한 용기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1-3	주장	(바)의 '시인' 또한 같은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
	대상	시인은 진실만을 말한다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살아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억압적 정권에 항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적용	이것이 바로 도덕적 신념에 따라 행하는 진정한 의리지용인 것이다.

[대학 제시문 해설]

-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비상교육, 2016) 교과서에 실린 장영희의 「미안합니다」의 일부이다.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광복 이후 문학의 전개 양상과 문학 갈래별 특성을 시대 상황에 접목하여 파악하고 더 나아가 광복 이후의 문학을 통해 한국 문학의 특질과 전통을 이해하는데 있다. 이 작품의 작가가 일상의 경험을 통해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갖는 가치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그린 2000년대 수필이다. 이 작품에서는 투쟁에 가까운 삶을 살아 왔던 작가에게 있어서 왜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는가를 이해하고, 일상의 경험을 통해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갖는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제시문 (마)는 『EBS 수능 특강 독서』 75~76쪽에 실린 지문의 일부이다. 이 글은 맹자가 말하는 부동심의 실천적 행동력의 핵심인 ‘용기’에 대해 설명한다. 맹자에 따르면, 용기는 크게 혈기의 단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혈기지용’과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의리지용’으로 나뉘어 진다. 또한 용기에 대한 맹자의 평가에 따르면, 진정한 용기는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통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선한 본성을 실현하는 용기이다.
- 제시문 (바)는 『독서와 문법』(지학사, 2016)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시 「분서」의 전문이다. 이 단원의 주요 학습목표는 비판적 읽기이며 주어진 글을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고 자료의 적절성, 주장이나 의견의 타당성, 그리고 관점의 공정성을 비판하는데 있다. 학습목표는 글쓰기가 자신의 사고 과정을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폭압적이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는 독재 정권에 분연히 맞서 진실을 수호하기 위해 당당히 맞서는 지식인의 저항을 보여준다.

[대학 채점기준]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라)의 ‘나’에게 나타난 변화와 제시문 (마)에서 맹자가 말하는 용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맹자의 용기를 적절히 활용하여 ‘나’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20점): 5~20점 부여
 제시문 (라)의 ‘나’는 과거에는 삶을 투쟁으로 보고 항상 승리해야 한다는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스스로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를 실천하지 못했으나, 자기 성찰을 통해 과도한 승부근성이나 열등감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를 실천한다.

- 제시문 (라)의 '나'의 변화는 정확히 파악했으나 논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을 경우, 5~7점 부여
- 제시문 (라)의 '나'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했을 경우, 8~10점 부여

제시문 (라)의 '나'의 기존의 삶은 투쟁에서의 승리만을 추구했으므로 혈기를 단련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용기인 '혈기지용'을 실천하는 삶으로 볼 수 있으나, '나'는 자기 성찰을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를 실천했으므로 자신을 낮추고 부끄러움 없이 선한 본성을 행하는 '의리지용'을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했다.

- 제시문 (마)에서 맹자가 말하는 두 가지 용기에 대해 정확히 파악했으나, 제시문 (라)의 '나'의 변화에 적용하여 설명하지 않은 경우, 2~5점 부여
- 제시문 (마)에서 맹자가 말하는 두 가지 용기에 대해 정확히 파악했으나, 제시문 (라)의 '나'의 변화에 한 가지 용기만 적용한 경우, 6~8점 부여
- 제시문 (마)에서 맹자가 말하는 두 가지 용기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제시문 (라)의 '나'의 변화에 두 가지 용기를 모두 적절히 적용한 경우, 9~10점 부여

2) 제시문 (바)에서 나타나는 용기를 파악하고, 제시문 (마)에서 맹자가 말한 두 가지 용기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20점): 5~20점 부여
제시문 (바)의 시인은 양심적인 지식인을 위협하는 폭압적인 독재 체제에 분연히 맞서서 진실을 수호하고자 정의를 지켜내고자 하는 용기이다. 제시문 (마)에서 맹자가 말하는 진정한 용기는 스스로 반성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의리지용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당당히 폭압적인 체제에 맞서는 시인의 용기는 의리지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제시문 (바)에서 나타난 시인의 용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2~5점 부여
- 제시문 (바)에서 나타난 시인의 용기를 정확히 파악했으나, 맹자의 의리지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지 못했을 경우, 6~15점 부여
- 제시문 (바)에서 나타난 시인의 용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맹자의 의리지용에 해당한다고 적절히 설명한 경우, 16~20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측면 (-5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제시문 (라)의 '나'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여 설명했는지 평가(10점): 5~10점	제시문 (라)의 '나'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였으나 논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을 경우	5~7점
		제시문 (라)의 '나'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을 경우	8~10점
	② 제시문 (라)의 '나'의 변화를 제시문 (마)에서 맹자가 말한 두 가지 용기를 바탕으로 적절히 설명했는지 평가(10점): 2~10점	제시문 (마)에서 맹자가 말하는 두 가지 용기에 대해 정확히 파악했으나, 제시문 (라)의 '나'의 변화에 적용하여 설명하지 않은 경우	2~5점
		제시문 (마)에서 맹자가 말하는 두 가지 용기에 대해 정확히 파악했으나, 제시문 (라)의 '나'의 변화에 한 가지 용기만 적용한 경우	6~8점
		제시문 (마)에서 맹자가 말하는 두 가지 용기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제시문 (라)의 '나'의 변화에 두 가지 용기를 모두 적절히 적용한 경우	9~10점
	③ 제시문 (바)에서 시인인 실천한 용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시문 (마)에서 맹자가 말한 두 가지 용기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적절히 판단하여 설명하는지 평가 (20점): 2~20점	제시문 (바)에서 나타난 시인의 용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2~5점
		제시문 (바)에서 나타난 시인의 용기를 정확히 파악했으나, 맹자의 의리지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지 못했을 경우	6~15점
		제시문 (바)에서 나타난 시인의 용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맹자의 의리지용에 해당한다고 적절히 설명한 경우	16~20점

[대학 예시답안] 570자

(라)의 '나'는 삶의 투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자신의 결함과 실수를 알고 있지만 이를 스스로 인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용기를 실천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반성적 성찰을 통해 과도한 승부근성, 열등감 등의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 맹자에 따르면, 나의 이전의 삶은 상대방을 이기려고 혈기지용을 부리는데 국한되었으나, 변화된 삶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할 줄 아는 내면화된 용기인 의리지용을 지향하는 삶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바)의 시인의 용기는 진실을 은폐하고 양심적인 지식인을 겁박하는 부정한 독재 체제에 분연히 맞서 곳곳이 진실을 수호하고, 정의를 지켜내려는 용기이다. 이는 두려움 없이 상대와 맞서 이기려는 맹자의 혈기지용을 넘어서, 진실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용기인 의리지용에 해당된다. 즉 폭압적인 체제에 직면하여 자신의 신념을 당당히 외치고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바)의 지식인의 용기는 맹자가 진정한 용기로 평가한 스스로 정의롭다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대적할 수 있는 의리지용으로 볼 수 있다.

[국립국어원 띄어쓰기] '그때는'

질문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에 대한 띄어쓰기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그 때는' 둘 다 안 되나요?

답변

"표준국어대사전"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시간상의 어떤 점이나 부분을 이르는 '그때'를 한 단어로 처리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와 같이 적습니다.